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업 기반 시설사업에 1천520억 투입

[전승현]



한국농어촌공사 CI

[농어촌공사 제공]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천520억원을 투입해 노후 농업 기반 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을 정비하고 방조제들을 보수한다.

전남지역본부는 또한 저수지 안전성 강화, 용·배수로 기능 회복, 양·배수장 성능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단계적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개보수 사업을 통해 수리 시설물의 노후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 이용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